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서울시 사대문안은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 현재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조선 말기를 거쳐 일제 강점기에 걸쳐 있는 것들이 많음. 그러나 특정 문화유산들은 일본의 흔적이란 이유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

○서울시 사대문안은 주로 궁궐과 관청을 중심으로 권문세가들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던 북촌과 개화기 이전 서민들의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개화기 우리나라에 정착한 일본인이나 미국인에 의하여 근대적으로 개발된 남촌으로 나누어져 특색있게 발전함으로써 근대사의 역사적 특징들을 잘 대변해주는 구조를 보임.

(3)

○근대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는 건축학적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함. 근대관련 문헌이나 역사적 자료 등은 다수 존재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연구도 부족함.

(4)

○사대문안은 서울의 근대화 형성과정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서울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의 고유성(authenticity)과 정체성(identify)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5)

- 근·현대의 문화적 유산들은 유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옛 이야기를 살려 고유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

(6)

- 스토리텔링 기법은 관광지나 관광자원들과 연관된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음. 스토리텔링을 통한 근대문화유산 관광활성화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낮은 인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서울의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가짐.
- 첫째, 근대문화유산의 검토를 위해 서울시 사대문안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 목록들을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구축함. 둘째,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을 위한 요소들을 검토함. 셋째, 사대문안의 근대문화유산들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제시함.

2.

1)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근대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위한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짐.

2)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근대의 시간적 범위는 ‘개화기를 기점으로 해방 전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 형성된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킴.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근대문화유산 검토는 서울시 사대문안으로 국한하였으며, 사대문안 지역 중에서 근대문화유산 밀집지역인 중구와 종로구로 한정함.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사대문안의 근대문화유산은 목록은 문화재청 등록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함. 서울시 소재 전체 문화재 중 “근대문화유산 자료 및 목록화사업 보고서”를 기초로 종로구 329개와 중구 150여개의 문화재 중 총 74개(종로구 45개, 중구 29개)를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함.

3) 연구의 활용

- 근대문화유산의 가치 증대 및 인식의 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극복과 역사적 인식의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서울시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을 통해서 서울의 고유한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근대문화의 역사적 가치 증대와 지역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함.
- 서울시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증대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 노력은 서울의 근대문화 모습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과 고유한 이미지 발굴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Ⅱ. 서울시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 현황 및 활용실태

1.

- 근대문화유산은 개화기를 기점으로 현시점에서 50년 전까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문·사회·지리·환경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함. 즉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 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은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 근대문화유산의 무분별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허가위주의 기존 지정제도와 구별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에 기초한 신고위주의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2001년에 도입·시행하고 있음.

2.

- 서울시 소재 문화재는 1,293개로 전국 문화재의 약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종로구가 329개, 용산구 251개, 중구 150개, 관악구 110개 순으로 나타남. 서울시에선 전체 등록문화재의 약 15%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문화재는 총 64개로, 종로구(22개), 중구(9개)에 밀집되어 있음.
-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 선별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서울시 “근대문화유산 자료 및 목록화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종로구와 중구에 있는 전체 문화재 중 추출하였으며, 종로구 45개, 중구 29개 등 총 74개의 근대문화유산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 －종로구 :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9개, 시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10개, 기념물 1개, 민속자료 7개, 문화재자료 2개, 등록문화재 12개, 기타 4개가 소재하고 있음.
 - －중구 :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8개, 시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3개, 기념물 3개, 민속자료 4개, 등록문화재 9개, 기타 2개가 소재하고 있음.

< 1> ,

(45)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9)				가	가
	가				
		가			

3.

1)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 유형별 분석

- 대부분의 근대문화유산들은 내부의 변형이 어려우며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매우 제한적임. 변형이 용이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은 21건으로 파악됨.
-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사유는 63.5%, 국유는 16.2%, 시소유는 18.9%로 근대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사유(63.5%)라는 사실은 공공을 통한 관광자원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 건축구조별로 살펴보면 47.3%(35개)가 목조건축물, 24.3%(18개)가 철근콘크리트조, 23%(17개)는 벽돌조적 구조로 되어 있음(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문화재 훼손없이 문화시설로 변경 및 활용이 가능). 건립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전체의 43.2%(32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교육시설이 14.9%(11개), 종교관련 시설이 12.2%(9개)를 차지함(현재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25.7%(19개)로 가장 많으며, 주거시설의 경우 20.3%(15개)로 감소하였음).
- 전체의 31개(41.9%)가 비개방형으로 이 중 18개가 인물 관련 근대문화유산으로 대부분 개인이 주거하는 사유시설이며, 개방형은 43개(58%)로 이 중 17개가 단순히 문화재의 외관만을 둘러보는 형태임.
- 지하철역 반경 500m 내에 속하는 근대문화유산은 총 74개 중 48개(약 65%), 1000m 내에 속하는 근대문화유산은 총 74개 중 66개(89%)로 이들에 대한 방문객들의 접근성은 양호함.
- 근대문화유산의 밀집도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근대문화유산이 북촌 및 정동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북촌지역 17개(23%), 정동지역 12개(16%), 북창, 남대문, 명동지역 6개(8.1%), 인사동 4개(5%)로 나타남. 이는 다시 자원의 현재 활용도에 따라 북촌 및 인사동 지역, 정동지역, 북창/남대문/명동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서울시 근대문화유산 활용 현황

- 서울시 도보관광 프로그램은 서울의 주요명소를 문화유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으며 도보로 관광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개 지역 12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06명으로 한국어 35명, 영어 77명, 일본어 77명, 중국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보관광코스 이용객은 2003년 5,854명에서 2008년 62,318명으로 6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2003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 서울시 근대문화유산 활용의 문제점

(1)

- 서울시 사대문안의 근대문화유산은 건축사적 가치, 역사적 가치, 근대 및 현대 문화예술적 가치, 종교 및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 진정한 의미가 일반 시민사회에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 건축물이 파괴되고 일부 건물들이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용이 요구됨.

(2)

- 근대문화유산은 예비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재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심 분포도가 높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토지개발욕구로 인해 훼손될 위험이 크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보호조치 미흡으로 훼손 위험성이 여전히 높음.
- 문화재 활용은 적극적인 보존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면서 낡고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며, 문화재 활용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3)

- 대부분의 근대문화유산들은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거나 개인시설들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자료 및 안내시설 등의 부족으로 외부에서 관람하거나 입장이 불가능한 곳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4)

-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대문안의 근대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서울 도심의 역사성은 역사유물보다도 그 시대의 삶의 공유에 두어

야 하며, 이에 따라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Ⅲ. 관광지 스토리텔링

1.

-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여기서 스토리는 어떤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말하고, ‘텔링’은 매체에 맞는 표현방법을 말함.
- 스토리텔링 기법은 여러 가지 잠재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체험적 요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행동 변화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라는 이점이 있음.

2.

1) 관광지 스토리텔링

(1)

- 스토리를 발굴한다는 것은 장소의 매력적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며, 스토리를 체험한다는 것은 방문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장소감을 느끼는 과정임. 이렇게 형성된 장소감은 서로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성을 승화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과 고유문화는 나와 남을 차별화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

(2)

- 관광지 스토리텔링은 관광자원 및 문화유적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테마관광, 각종 지역축제, 박물관 및 전시관 등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미나 환상, 동질감 등을 통해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여 관광지 이미지 형성과 관광객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3)

- 관광지 스토리텔링은 관광객 유도를 위해 관광지와 관광지에 얽힌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관광체험지가 관광객에게 의미있는 장소로 남을 수 있게 하며,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 경험은 자신만의 체험이나 의미 있는 추억 형성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구전효과를 가져와 관광객 유도는 물론 지역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됨.

2) 관광지 스토리텔링 개발

- 관광지 스토리텔링은 관광지를 둘러싼 스토리를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객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의미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함. 따라서 관광지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관광객의 감성에 맞는 체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과 관광지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체계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 스토리텔링의 개발 단계별 전략을 관광지 스토리 발굴, 스토리텔링의 주요 목표 설정, 주요 테마개발, 매체선정, 실행계획의 5단계로 구분하였음.

< 2 >

1.		
2.		.가 ,
		, ,
3.		, ,
		, , 가
4.		: , , , 가 ,
		, , , / , , , , ,
5.	, 가	가

IV. 서울시 근대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1.

- 1단계 : 사대문안의 근대문화유산 관련 주요 스토리 발굴 : 사대문안의 근대문화유산을 목록화하고 각 자원을 형태별로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자원화의 가능성과 관련 이야기 및 테마를 검토
- 2단계 :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의 목표 설정 :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의 목표를 관광객의 체험확대, 자원의 보호, 홍보 확대, 관광객의 안전한 관광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검토
- 3단계 :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의 테마 개발 : 근대문화유산의 주요 테마의 개발단계로서, 1단계의 주요 스토리 발굴과 목록화 작업을 통해 도출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대문안의 관련 스토리들에 따라 3개 지역으로 구분
- 4단계 :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의 매체 계획 :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스토리텔링의 전달 방법에 따라 제시

2.

1) 서울시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 발굴

- 근대의 기술 및 상업관련 시설 : 서울의 근대기는 새로운 서양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로서 전기, 의술, 은행과 같은 상업시설들이 처음으로 들어선 역사적 가치를 지님.
- 근대 건축기법의 변천 : 사대문안은 한옥을 비롯하여 서양풍의 근대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북촌 지역은 한옥의 변천사와 당시 한옥과 서양의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룸.
- 교육 관련시설 및 교육환경의 역사 : 정동지역은 서양의 공관들이나 선교사들과 관련된 건축물들이 남아 있으며, 최초의 교육시설 유입의 배경 및 관련 이야기들이 남아 있음.
- 근대 인물관련 스토리(정치 및 문화예술) : 북촌은 당시의 주요 정치관련 인물들이 거주 하던 곳으로 우리나라 근대문화예술이 싹트기 시작한 곳임.
-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정치의 역사 : 독립운동과 3.1운동 관련 사건들이 남아 있는 곳으로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남아 있음.

- 종교관련 시설 :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천주교 및 교회와 관련된 많은 건물들이 분포함.
- 사회문화시설 :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원구단, 최초의 법원, 최초의 국립중앙극장 등의 시설들이 남아 있음.

2) 서울시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목표 설정

- 사대문안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광객 이해 폭 확대 : 사대문안의 유형적 혹은 무형적 근대문화유산 및 문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 폭 확대
- 사대문안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및 긍정적 이미지 확대 : 사대문에 밀집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및 안내책자의 개발, 관광상품화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인지도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확대
-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전 및 보호 : 스토리텔링을 통한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체험 확대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변형이나 훼손의 위험성 감소와 훼손되거나 사라져 버린 자산들에 대한 가치 향상을 도모함.
- 관광객 체험 확대 : 사대문안의 진정성과 고유성을 가진 자원과 스토리의 발굴을 통한 관광객 감동과 체험 확대

3) 서울시 근대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테마 개발

(1)

- 북촌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한양 역사지구의 가장 중심적 부분이며, 한옥의 변천사 및 가옥의 형태와 당시에 활약했던 문화예술 정치인의 발자취들이 남아있는 공간임.
- 북촌의 역사적 주거지역은 주민들이 살아온 전통문화 공간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를 함양케 하는 중심적 근거지의 역할을 함.
- 북촌지역은 유교적 생활문화 정신을 교육, 홍보, 보급시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왕실문화, 선비문화, 놀이문화, 풍류문화, 여성문화, 예능문화, 음식문화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2)

- 정동일대는 덕수궁과 경희궁 등의 역사적 건축물들이 분포하며, 특히 덕수궁 주변과 시청, 정동 부근은 근대적 건축물들이 많은 근대문화 역사지구의 특성을 지님. 당시 구미열강과의 정치적 관계들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구러시아공사관 및 미국공사관을 비롯하여 왕실 귀족들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 정치 및 종교, 교육 등의 시설들이 밀집됨.
- 정동지역은 개화기를 거쳐 서양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서양문물이 시작된 곳으로 알렌, 헐버트, 스크랜튼 선교사들의 저택과 개신교회, 신식학교, 신문사, 병원, 호텔, 클럽, 다방들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자연적으로 서양식 복식, 음식,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곳임.

(3) / /

- 남촌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근대화, 서구화의 문화적 체험 공간이자 소비 중심의 공간이었음.
- 북창, 남대문, 명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적으나 다수 남아 있는 문화 예술 관련 옛 기록이나 문헌들을 통해 근대문화예술사의 가치가 높은 지역임.
- 남촌지역은 정치와 경제의 대표적인 중심 공간이었으며, 명동은 당시를 대표하는 모던길과 모던보이들의 활동장소였음. 남촌지역의 극장이나 다방을 중심으로 인텔리의 활동 공간과 문화의 공간이 형성됨.

3.

1) 도보관광코스의 확대

- 정동지역은 근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남아 있어 도보관광코스의 추가 개발이 용이함.
- 북촌 및 인사동, 정동지역, 남촌 지역을 통합하는 도보관광 및 투어버스 개발이 가능함. 이 지역은 조선후기 정치세력들, 서양세력, 일본세력 등 주요 세력들과 이들과 관련된 문화가 남아 있어 새로운 관광코스의 개발이나 투어버스를 통한 루트 개발이 가능함.

2) 가상공간 및 영상작업을 통한 근대문화유산 활성화

- 근대문화의 영상작업 및 버추얼 투어 : 북촌의 비개방 건축물에 대한 버추얼 투어를 접목하여, 웹상에서 가상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제공함.
-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 사대문안에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발자취를 따라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근대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

3) 근대문화박물관 및 근대생활사 박물관의 건립추진

- 근대문화박물관 혹은 근대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해 서울 근대의 역사 및 격동의 사건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모습과 생활상을 보여주고 관련 자료들을 제공함.

4) 근대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 확대를 위한 전문책자의 제작
- 근대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 전문적 건축 지식의 확대를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근대문화 인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시민과 함께 하는 근대문화유산 프로그램, 종교시설 관련 프로그램 등의 제작

5) 행사의식 제현

- 삼국시대부터 국가적 제천의례로 시행해오던 원구단 제사의식의 재연이나 북촌 및 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3.1운동 재연 행사를 개최함.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 , ,

- 북촌, 정동, 남촌 지역은 서울의 중심 관광지로서 많은 내외국인들이 찾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역사적 배경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함. 서울의 근대문화는 일본 및 서양세력의 잔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서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현대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함.

2.

가

- 전문가에 의한 근대문화유산 스토리의 발굴이 필요함. 서울시 사대문안은 근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하나의 큰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내용 검토 및 세부 테마로 구분해야 함.
- 근대문화유산의 그룹화 작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루트의 개발과 스토리텔링 매체로의 활용이 필요함. 특히 북촌 및 정동 지역에 밀집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연계를 통하여 스토리텔링 루트 및 관광문화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함.

3.

- 전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스토리텔링의 활성화가 필요함. 관광객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즉 단순한 해설관광에 대한 집중보다는 관광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스토리텔링 매체를 활용해야 함.
-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발굴을 위해 스토리텔링의 단계별 작업에 의한 이야기의 도출과 구성이 필요하며,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이야기의 발굴 및 스토리텔링 작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